

청소년의 관계형성역량 향상을 위한 가정과교육의 방향 탐색

심재영* · 최새은**†

*한국교원대학교 가정교육과 박사과정 · **한국교원대학교 가정교육과 교수

The Direction of Home Economics Education(HEE) Curriculum for Improving Relationship Competency of Korean Youth

Shim, Jaeyoung* · Choi, Saeun**†

*Ph.D Students,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Professor,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direction of home economics education and provide specific implications to help adolescents develop relationship competency. For this purpose, the contents of Korea's character education and UK's relationships education curriculum were analyzed,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Character education in Korea focused on character education values such as responsibility, respect, consideration, and communication throughout the public education system. These contents were largely consistent with the learning content elements for cultivating relationship-competency in home economics education. UK's relationships education at the primary and secondary levels were similar to tha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in middle school in Korea in its goals and learning contents for understanding and maintaining healthy relationships. However, differences existed in areas of safe relationships, setting boundaries with others, comprehensiveness of sex education content, rights to refuse sex education, and education content based on equal rights.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concept of education on relationships needs to be defined, the composition of educational content should be systematically developed, and further research on the development of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and learning programs that can elicit and internalize students' attitudes and changes is needed. In addition, insights were gained regarding additional educational contents and considerations to take into account.

Key words: 관계형성역량(relationship-competency), 영국의 관계교육(UK's relationships education), 인간발달과 주도적 삶(human development and leading life), 청소년(Korean adolescents)

† 교신저자: Choi, Saeun,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250 Taeseongtabyeon-ro Gangnae-meyon Heungdeok-gu, Cheongju-si, Chungbuk 28173, Republic of Korea
Tel: +82-43-230-3734, Fax: +82-43-231-4087, E-mail: saeeun@knue.ac.kr

I. 서론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청소년기는 관계를 맺는 대상이 확장되고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 자아를 찾아가는 자아 정체감 형성 단계이다. 이러한 청소년들은 초중고를 막론하고 관계에 관한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으며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한다. 2023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전체 피해 응답률은 1.9%로 2022년 1차 조사보다 0.2%p 증가하였고(Ministry of Education [MOE], 2023), 2022년 최근 1년 내 가출한 청소년들이 말하는 주된 가출 이유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의 문제 때문이었다(56.6%)(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MOGEF], 2023b).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고민을 알아볼 수 있는 1388 청소년 전화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의 전국의 청소년 상담 유형 중 대인관계는 정신건강 다음으로 높았고, 2017년부터 2019년에는 가장 높은 상담 유형이었다(MOGEF, 2023a).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10대 청소년들의 좌절된 대인관계의 욕구는 주관적 안녕감을 낮추었다(Choi et al., 2022). 그리고 현재 10대 청소년은 Z세대로 불리는 디지털 네이티브로서 온라인상의 관계까지 그 범위가 확장되었기에 온오프라인을 포함하는 관계에서 다양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학교 교육 중 가정교육은 개인과 가족의 행복을 목적으로 한다(Chae et al., 2017). 이를 위해 초등 실과와 중등의 가정교과의 학습 내용 요소로는 ‘인간발달과 주도적 삶’ 영역에서 청소년의 이해, 성과 이성교제, 친구 관계, 가족의 의미와 가족 간 관계를 이해하고 이들과의 갈등 상황의 원인과 해결 방법, 의사소통, 성폭력과 가정폭력의 예방 등의 내용으로 관계형성 능력을 기르고자 한다(Ministry of Education [MOE], 2022). 이렇게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교육은 가정교과에서 중요한 부분이므로, 가정교육은 공교육에서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관계에 관한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교과라고 볼 수 있다.

가정교과는 건강한 관계에 대해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교과이지만 직접적으로 관계형성역량을 다룬 선행연구(Kim, 2018; Yu & Park, 2019)나 관계형성역량 증진을 위한 미래 교육의 방향을 탐색하는 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다

만 핵심 개념으로서 ‘관계’나 ‘인간 발달과 가족’ 영역에 관한 교수·학습 과정안 개발 연구(Joo & Choi, 2020; Lim et al., 2022; Park & Ju, 2019; Shim & Choi, 2020)와, 교육과정이나, 교과서를 분석한 연구(Kim et al., 2019; Kim & Yu, 2019; Lee & Yu, 2019; Lim & Choi, 2023; Lim et al., 2020; Lim & Jun, 2016),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Lee & Choi, 2021)가 이루어진 바 있다. 따라서 가정교육이 미래 세대의 관계형성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의 방향을 탐색하기 위해, 청소년들의 관계 형성 역량에 초점을 맞춘 국내외 교육 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인성교육을 대표적인 관계교육의 사례로 살펴볼 수 있다. 인성교육은 관계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므로 인성교육에서 관계는 중요한 부분이다(Introduction of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2015). 또한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핵심 가치·덕목은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으로 이를 실천하기 위해 의사소통 능력과 갈등해결 능력을 인성역량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대체로 타인과의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교육의 내용이기도 하다. 이에 범교과 학습으로 진행되는 인성교육의 특징과 교육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여 행복한 삶을 지향하는 가정교과에서 청소년들의 관계형성역량을 위한 교육적 함의를 얻고자 한다.

해외 교육 사례로는 영국의 사례에 주목할 만하다. 영국은 관계형성역량에 대한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관계교육’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는 초·중·고 교육과정에서 필수교과로 의무화되어(Department for Education [DfE], 2019a), 보편적 교육을 정착화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관계형성역량을 키우는 교육이 어떠한 목적과 절차에 따라 필수교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가정교과의 방향을 정립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더욱이 영국의 교육과정은 우리나라에서 국가 교육과정 개정 때마다 비교·검토의 대상이 되었고, 4-8년 정도의 비교적 짧은 주기로 개정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하다. 영국의 교육은 수학, 과학 등 교과 지식의 학습, 학업성취도를 중요하게 여기지만(So, 2015), 온라인 포르노, 섹스팅(sexting), 온라인 활동에서 안전을 위협하

는 문제들이 만연하여 기존의 교육 방침은 실패라고 결론짓고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자성에 따라 2019년에 ‘관계교육(relationships education)’, ‘관계 및 성교육(relationships and sex education)’ 과목이 필수교과로 지정되었다(Pound et al., 2017; Pound et al., 2016). 점점 더 복잡하고 예측할 수 없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데 관계교육의 중요성을 인정한 것이고, 교육계, 학생, 학부모의 공통된 요구이기도 하였다(DIE, 2017a). 바로 이러한 맥락적 측면을 고려할 때, 영국의 관계교육의 제도화 과정과 교육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관계형성역량 증진을 위한 가정과교육의 방향을 탐색하는데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한국의 인성교육과 영국의 관계교육의 제도적 형성 배경과 교육과정 안에 담고 있는 내용 요소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가정과교육의 방향을 탐색하고 구체적인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관계형성역량을 위한 한국 인성교육의 특징과 내용은 어떠한가?
- 둘째, 관계형성역량을 위한 영국 관계교육의 특징과 내용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 2022 개정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과 관계형성역량

가정과교육은 개인과 가족의 행복을 목적(Chae et al., 2017)으로 하며 2022 개정 실과(기술·가정)의 공통 교육과정 가정생활 영역은 ‘인간 발달과 주도적 삶’, ‘생활 환경과 지속가능한 선택’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소년이 자신을 이해하고,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가족과 친구를 비롯하여 생활환경과도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게 한다. 그리고 자립적인 생활인으로서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실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

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가정과교육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MOE, 2022, p.6). 첫 번째는 자기와 타인을 이해하여 건강한 발달과 긍정적인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며 상호 존중과 돌봄의 태도로 대인관계를 형성하도록 한다. 또한, 개인의 발달과 삶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건강한 의식주 생활을 위해 필요한 자립적 생활역량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두 번째는 변화하는 환경에서 개인과 가족이 지식, 능력, 태도를 향상시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고, 생활 자원을 합리적으로 활용하며 공동체와 생태환경을 고려하는 책임 있는 행동을 실천하여 자신과 가족, 공동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생활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는 청소년이 자기 이해와 자기 수용을 통해 타인을 이해하고 조화롭게 상호작용하는 데 도움이 되며, 상호 존중 및 돌봄의 태도를 키우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가정과교육의 목표는 관계형성역량을 향상시키고, 변화하는 환경에서 적응하며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2022 개정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에서 가정생활과 관련한 내용 체계 중 ‘인간 발달과 주도적 삶’ 영역은 ‘발달’과 ‘관계’라는 핵심 개념에 기반을 두었으며, 청소년의 발달과 관계 형성을 목표로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가족 및 생활환경과 건강한 관계 형성을 하여 함께 살아가기 위한 공동체 역량을 길러주고자 하고 있다. ‘인간 발달과 주도적 삶’ 영역의 학습 내용 중에서 관계형성역량과 관련된 것을 추출하면 <Table 1>과 같다. 초등학교 실과교과를 통해서 아동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이해하며 아동 스스로 자신의 발달 단계상의 특징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현실 가족 안에서 가족의 요구를 파악하는 기능을 갖출 수 있는 내용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아동이 그대로의 자신을 수용하고 가족 간 배려와 돌봄의 가치를 내면화하며 협력적 소통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이를 수용하는 태도와 가치를 갖추게 하고 있다. 이는 관계를 맺는 것의 출발이 되는 자신에 대한 이해와 수용을 바탕으로 나와 타인을 존중하고 돌봄의 실천과 협력적 소통을 통한 가족과의 건강한 관계 맺음의 경험으로 타인과의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의 기초로서 관계형성역량의 기반을 갖추게 하고자 한다.

Table 1.
Content Factors Related for Relationship-Competency in HEE Curriculum

학교급	내용 요소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
초등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기 발달과 자기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원의 다양한 요구 파악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기 발달에 대한 긍정적인 수용 • 가족 간 배려와 돌봄의 가치 • 협력적 소통에 기반한 역할 분담의 가치 수용
중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기 발달과 자아 정체성 • 자기이미지와 표현 • 청소년 문제와 적응유연성 • 가족의 다양성과 변화 • 가족 간의 갈등과 소통 • 뉴노멀사회에서의 가족문화 • 또래와 세대 관계 • 상호 존중 관계의 형성과 역할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기 발달 특징을 자신에게 적용하기 • 청소년기 건강한 자아 정체성 형성하기 • 청소년의 문제 상황 대처하기 • 시민적 역량과 관련된 가족의 역할 탐색하기 • 역할 기대를 고려하여 문제 해결 방안 탐색하기 • 의사소통과 갈등관리의 방법 탐색하기 • 또래 및 가족과 친밀한 관계 형성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기 발달에 대한 긍정적인 수용 • 성적 의사 결정의 상호 존중과 성인지 감수성의 함양 • 성폭력과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및 시민적 행동 내면화 • 다양한 생활 방식 및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 • 가족원으로서 협력과 공감의 태도 • 가족 친화적 가치에 대한 존중 • 다름을 존중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가치 실현

중학교 가정교과를 통해서 청소년기 발달 특징과 긍정적 자아 정체성, 청소년 문제와 적응유연성, 가족의 다양성과 변화, 가족 간의 갈등과 소통, 뉴노멀 사회에서의 가족문화, 또래 관계와 세대 관계, 상호 존중 관계의 형성과 역할수용에 대한 지식을 갖추게 한다. 이러한 지식을 토대로 자신에게 적용하고 건강한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며, 문제 상황에서는 적절하게 대처하고 또래와 가족과도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의사소통과 갈등관리의 방법을 탐색하는 과정을 경험하고 기능을 갖추도록 한다. 성적 의사결정과 성인지 감수성의 함양, 성폭력과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과 시민적 행동의 내면화를 포함하여 지식과 기능의 내용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가치를 내면화하여 행동으로 실천하게 하는 가치·태도 범주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2022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에는 가상공간에서의 또래 관계와 뉴노멀 사회의 가족문화와 같은 온라인에서의 관계가 새롭게 포함되어 있다(MOE, 2022). 가정교과의 교육과정에서 핵심 개념으로 ‘관계’를 내세운 만큼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교육은 가정교과에서 중요한 부분이며, 공교육에서 관계형성역량 함양을 전면에 내세운 교과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2. 가정교육의 관계형성역량 선행연구

가정교육에서 관계형성역량은 관계형성능력, 관계형성과 같은 용어 안에서 다루어져 왔고, 관계형성역량 함양을 위한 학습 내용을 담은 연구로서 주생활 영역의 교수 설계안 개발을 개발한 연구가 있다(Kim, 2018). 이는 주생활 문화를 창조하기 위해 이웃과의 존중과 공감, 공동체 감수성 함양에 초점을 맞추고, 교수·학습 과정에서 모둠원과 협동하여 과제를 수행하는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관계형성역량을 강화하는 목적의 연구이다. 가정교육에서 이루어진 관계형성역량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로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건강한 커플관계교육을 실행하고 이를 통해 관계형성능력의 향상과 결혼 가치관 변화를 확인한 연구가 있다(Yu & Park, 2019). 연구자는 의사소통, 자기이해, 갈등해결, 공감을 관계형성능력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하여 수업을 개발하고 실행을 통해 고등학생들이 관계형성능력을 함양하고 결혼에 관한 긍정적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밝혔다.

관계형성역량에 직접적으로 초점을 두지는 않았으나, ‘인간 발달과 가족’ 영역이나,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 개념 중 하나인 ‘관계’에 초점을 두어 교수·학습 과정을 개발한 연구들이 있다. 2015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의 인간발달과 가

족 영역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생활 영위를 통해 지속가능한 삶의 실천을 목표로 하는 수업 개발(Lim et al., 2022), 가족의 이해 단원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을 목적으로 하여 가족의 의미와 변화하는 가족 가치관을 이해하는 수업의 개발(Shim & Choi, 2020), 가족 형태, 가족관계, 가족 갈등, 성폭력, 가정폭력, 가족 상실에 관한 주제에 그림책을 활용하여 청소년의 회복탄력성의 향상과 부모-자녀 관계에서 느끼는 애정 결속을 향상시킨 수업 개발(Joo & Choi, 2020),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 핵심 개념 ‘관계’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백워드 설계 모형을 적용하여 가족의 갈등을 탐구하고 세대 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만들기 위한 수업의 개발(Park & Ju, 2019) 연구가 있었다.

그 외 2015 개정 가정과 교육과정의 ‘인간발달과 가족’ 영역이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분석한 연구(Lim et al., 2020)나 가정 교과서에 반영된 교과역량 관계형성능력과 실천적문제해결능력을 분석(Kim & Yu, 2019; Lim & Choi, 2023), 다문화 교육 내용에 관한 분석(Lee & Yu, 2019), 중학교 교과서의 핵심 개념 ‘관계’ 관련 단원의 내용 분석(Kim et al., 2019), ‘인간발달과 가족’ 영역에서 고등학교 선택과목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호주와 캐나다의 가정과 교과교육과정을 비교·분석(Lee & Choi, 2021) 등도 관계형성역량과의 관련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직접적으로 청소년의 관계형성역량 함양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고,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통해 학생들이 관련 역량, 지식이나 기능을 얼마나 얻을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종합하면 가정과교육에서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학습자에게 필요한 학습 내용 요소를 확인하거나 인간 발달과 가족 영역과 핵심 개념 ‘관계’를 대상으로 사회 변화에 따라 반영해야 할 교육 내용을 탐색하고 수업을 개발하여 관계형성역량 향상에 기여한 연구 등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관계형성역량은 가정과의 교과 역량이며 개인과 가족, 타인과의 건강한 관계는 가정과교육의 목표이기도 하므로 관계형성역량에 초점을 두고 가정과교육의 역할을 찾는 구체적인 방향을 탐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III. 연구방법

1. 분석 대상

관계형성역량 함양을 위해 가정과교육의 방향을 탐색하고 구체적인 시사점을 제공하려는 연구 목적에 따라 이 연구는 한국의 인성교육과 영국의 관계교육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국내 사례 중 인성교육을 분석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관계와 관련된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뉴스에 자주 등장하면서 관련 법인 인성교육진흥법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인성교육이 체계적,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필수 법교과 주제로 학교 교육 전반에서 실행하고 국가 차원의 교육으로서 교과 연계를 위한 학습 내용과 수업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으며, 인성교육 내용의 상당 부분이 타인과의 관계 상황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이다. 이는 가정교과의 핵심적인 학습 내용을 포함하고 교과 목표와도 공통점이 있어 가정과교육에서의 관계형성역량 함양을 위한 시사점을 얻는 데에 유용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교육부에서 5년마다 수립되는 인성교육 법정 국가 종합계획인 1, 2차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과 인성교육진흥법, 학교폭력예방교육의 어울림 프로그램 등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국외 사례 중 영국의 관계교육을 분석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첫째, 청소년들의 사회성·정서발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관계교육’이라는 명칭으로 2019년부터 필수 과목으로 지정된(DfE, 2019a) 사례이기 때문이다. 가정교과의 입지가 점점 축소되는 것을 생각했을 때, 이 명칭은 인성교육, 사회정서교육, 폭력예방교육과 같은 이름보다 가정교과의 고유성, 중요성과 필요성을 담기에 적절하고 가정교과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을 개정할 때 영국의 교육과정은 비교·검토의 대상이기도 하며, 양국 모두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개발·적용하고 있는 동시에 지역과 학교급별 상황과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이 재구성되는 공통점을 갖는다(Han & Yoon, 2022). 따라서 영국의 관계교육에서 얻는 시사점이 가정교과의 향후 교육과정에 활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

라 이 연구는 영국의 국가 교육과정 법적 지침 ‘관계교육, 관계 및 성교육, 건강교육(Relationships Education, Relationships and Sex Education (RSE) and Health Education Statutory guidance for governing bodies, proprietors, head teachers, principals, senior leadership teams, teachers)’과 ‘개인, 사회, 건강, 경제 교육(Personal, social, health and economic (PSHE) education)’ 등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2. 자료 수집과 분석 과정

한국의 인성교육과 영국의 교육과정 관련 자료는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교육부 홈페이지와 국가법령정보센터 등과 같은 공식력 있는 웹사이트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영국의 국가별 교육체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방식 등의 자료와 관계교육에 대한 소개 자료는 영국 교육부 홈페이지(<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department-for-education>)에서 수집하였고 관계교육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과 사례 등은 영국 학교와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에서 제공하는 자료(<https://pshe-association.org.uk/>)를 통해 수집하였다. 영국의 관계교육 분석은 영국 교육부에서 제공된 교육과정과 관련한 문서로만 진행되었고,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부터 실행된 관계교육의 현장 적용상의 어려움이나 한계점 등에 관한 자료는 포함되지 않았다.

가정교과의 방향성 탐색을 위해 연구진은 2022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10회에 걸쳐 관계교육과 인성교육의 특징, 교육 내용을 추출하고 논의 및 협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인성교육진흥법과 1, 2차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과 관련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2022 개정 가정과 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 체계를 기준으로 관계교육의 내용을 비교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파악하였다. 이후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고 도표화 작업과 타당도 검증을 거쳤다. 영국 관계교육의 초·중등 학습 내용은 학습 내용 요소 위주로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연구진은 연구의 신뢰성 및 타당도 확보를 위해서 자료 수집과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도출된 결과와 시사점을 지속적으로 교차 검토하였다. 또한 가정교육 분야의 전문가 1인에게 두 차례에 걸쳐 결과를 공유하고 피드백을 받아 분석의 타당성을 높였다.

IV. 연구결과

1. 청소년의 관계형성역량을 위한 국내 교육 사례: 인성교육

1) 인성교육의 법적, 제도적 특징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각종 부패와 범죄 등의 문제와 교실 붕괴, 학교폭력, 낮은 행복 지수와 같은 현상은 인성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부각시켰고, 국가 교육과정에도 반영되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는 학교급별 목표와 초·중등학교 교과과별 교육과정에 인성 요소가 반영되었으며, 2012년 고시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내용 중 교육과정 구성의 방침 부분에 인성교육을 강조하는 항목이 추가되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도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인성 요소를 포함하는 핵심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과 교육과정이 개발되었다.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사건은 충격과 함께 인성·도덕성 약화에 대한 전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게 하였으며 2014년 12월 29일, 인성교육진흥법안은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로써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 7월 21일부터 인성교육진흥법이 시행되어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 학교에 인성교육 의무가 부여되었다. 이는 경쟁 위주의 지식 교육이 중심이었던 학교 교육과 사회에서 인성교육이 체계적,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인성교육진흥법에서 명시한 인성교육의 개념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길러주는 일이다. 핵심 가치·덕목은 인성교육을 통해서 이르고자 하는 목표이며, 공동체와 더불어 성장하는 인성 역량을 갖춘 시민으로서, 생활에서 예,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을 실천하는 것이다. 핵심역량은 핵심 가치·덕목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실천 또는 실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으로 지식, 공감·소통하는 의사소통 능력이나 갈등해결 능력 등이 통합된 것이다(Introduction of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2015).

인성교육진흥법에 근거하여 인성교육 추진을 위해 교육부에서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 국가 종합계획은 현재 제2차 계

획이 시행되고 있다. 제1차 인성교육 종합계획(2016~2020)은 교육기본법의 교육이념,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의 인성교육의 개념, 핵심 가치·덕목,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인성교육의 요소와 방향을 제시하였다(MOE, 2016). 제1차 종합계획에서는 학생들이 인성의 가치와 덕목(효, 예, 협력, 소통, 배려, 존중, 책임, 정직)을 주입식으로 학습하기보다는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역량 중 인성교육과 관계되는 역량인 자기관리역량, 심미적·감성역량, 의사소통역량, 갈등관리역량, 공동체역량을 개인과 대인관계, 공동체가 연결된 차원에서 균형 있게 학습하여 가치·덕목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MOE, 2016)은 학교 교육활동 전반에서 인성역량 요소를 반영하여 실천적 인성교육을 구현하고, 학교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가정과 학교, 사회가 함께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기본 방향을 세웠다. 이를 위한 인성교육의 추진과제는 크게 다섯 가지이다. 학교 교육활동의 전반을 인성 친화적으로 변화시키고, 인성교육을 활성화하며 교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인성교육이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와도 연계하여 실시하고 여러 기관 및 지역사회의 지원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고 인성교육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를 전 국민적으로 확산하는 것이다. 이 중 공교육 체제 내에서 인성교육을 구현하기 위한 세부 추진과제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학생의 인성을 가꾸는 학교생태계 조성'이다. 학교 교육계획에 인성교육의 목표를 설정하고 학생, 학부모, 교원이 소통하여 참여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학교 업무분장에서 '인성교육부장'을 지정하도록 권장하여 인성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그리고 학교의 구성원인 학생과 학생, 학생과 교사와의 바람직한 관계 형성을 통해 인성교육이 실시되는 '관계중심 생활교육'의 개념을 도입하고 활성화하였다. 또한 관계중심의 생활교육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하였고, 또래상담, 조정을 운영하여 교우관계에서의 문제나 갈등상황 등을 스스로 해결하도록 지원하고, 학생의 언어문화를 개선하여 긍정적 관계 형성에 기여하도록 선도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확산하도록 하였다. 그 외에 예절교육, 인터넷, 스마트폰을 바르게 사용하는 교육의 실시와 학생자치활동을 통해 민주시민의식 교육을 강화하고, 개인의 차이를 인정

하고 존중하는 건전한 가치관 형성 교육 확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활성화 등이 있다. 둘째, 인성교육중심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것이다. 학교별 인성교육의 목표와 실천적 성취 요소를 설정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법교과 학습 주제인 인성교육이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도록 한다. 수업과 평가는 도덕과, 사회과 등 인성교육과 관련이 높은 교과목의 수업을 체험, 실천 중심으로 재구조화하여 인성 역량을 체화하도록 하고 그 외 다양한 교과에서도 교과의 특성과 목표에 부합하면서 인성 역량과 가치를 학습, 습득할 수 있는 수업내용과 학생 참여, 활동 중심으로 개선하고 과정중심평가 실시, 지필평가 축소, 정의적 영역 평가의 확대와 같이 평가 방법을 개선하도록 하였다. 셋째, 인성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하는 것이다. 학교급별로 인성교육 핵심가치와 덕목이 반영된 교과 연계 인성교육 지도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 어울림 프로그램 중 인성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인성 역량 및 덕목 중심으로 재구성(의사소통, 공감, 자이즌증감 감정조절 등)하여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교과의 교과서에 인성 요소가 반영되도록 제도화하고 인성 관련 인정도서의 개발과 보급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넷째, 학교스포츠클럽 및 자유학기제 체육활동 활성화, 학생 오케스트라, 연극, 뮤지컬 등 예술교육 기회와 지원 강화, 인문 소양 및 독서교육, 자연환경 체험 교육을 활성화하도록 하였다(MOE, 2016).

제2차 인성교육 종합계획(2021-2025)은 1차 인성교육 종합계획 추진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인성교육의 개념과 관련 정책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교과교육과 인성교육의 연계에 집중하여 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MOE, 2020). 제2차 종합계획의 정책 추진 방향과 추진과제는 1차 종합계획에서 추진되었던 과제가 대체로 유지되었고 세부 추진과제의 일부를 개선·보완, 추가하였다. 특징적인 것은 인성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의 가치와 목표 역량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하나의 교육활동이 인성교육이면서 민주시민교육이 될 수 있음을 비교·확인하였다. 이 외에도 인성교육이 인권, 환경, 인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등의 지식·역량과도 중첩되는 부분을 살펴 개별 교육정책이 인성 함양에 기여하며 인성교육으로 성취된 지식과 역량이 각각의 개별 교육정책의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그리고 다양한 주제의 활동과 교육을 확대하는 방안이 정립되었는데 예를 들면, 체육교육, 예술교육, 인문소양 및 전통문화교육, 미디어 리터러시, 학교폭력 예방 교육, 법 교육, 환경교육, 산림교육, 동물보호교육, 지역사회 봉사활동, 장애학생과 다문화 학생의 인권 보호와 존중 등을 활성화하고 체계화하는 것이다. 또한 학교에서의 교육이 가정과 지역사회에서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학부모ON누리(www.parents.go.kr)의 온라인 학부모 교육(기적의 밥상머리 교육, 독서를 통한 우리아이 인성교육, 디지털 세상에서 아이를 키우는 방법, 자녀 관계 개선을 위한 어울림 프로그램 등)의 활성화와 식사 예절과 올바른 대화법을 학습하는 ‘밥상머리 교육’을 지속해서 추진하였다.

2) 인성교육의 내용

인성교육진흥법 시행과 함께 1, 2차 인성교육 종합계획에서는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교과교육과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인성교육 지도자료와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을 더욱 확대하였다. 교육부에서 개발한 지도자료와 프로그램, 교육부 인증 프로그램은 미리네(<https://www.miline.or.kr/mps>)에서 다운로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위하여 개발한 ‘어울림 프로그램’ 중에서 인성 역량 및 덕목 중심으로 재구성하여 인성교육 관련 프로그램으로 사용하도록 한 ‘어울림 기본 프로그램’과 ‘사이버어울림 기본 프로그램’은 학교폭력 예방 지원센터(<https://www.stopbullying.re.kr>)에서 다운로드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인성교육을 위해 교육부에서 개발한 자료(MOE, 2020)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초중고 학생을 위한 수업 지도자료와 프로그램 자료가 있다. 초등학교의 자료는 공감, 수용, 진정성, 인권, 미디어 리터러시 등의 인성을 함양하는 내용을 놀이, 속담, 연극, 동화 등을 활용하여 교과 수업, 창의적 체험학습 시간에 학습할 수 있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보급되었다. ‘사이버 미학’ 프로그램은 대면, 비대면의 수업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디지털 수업과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과 방법, 저작권 교육 등의 미디어 이용 교육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중학교의 자료는 인성 덕목 8가지(효, 예, 협력, 소통, 배려, 존중, 책임, 정직)와 공감, 세계시민의식, 인권, 민주주의

와 평등, 자유 등의 주제를 다루는 민주시민성 등의 인성을 함양하는 내용을 인물, 고전, 스토리텔링 및 사회정서학습, 애니메이션 제작, 뉴스 등을 활용하여 교과 수업, 창의적 체험 학습 시간에 학습할 수 있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보급되었다. 대면, 비대면의 수업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미디어 이용 교육내용을 담은 중등 ‘사이버 미학’ 프로그램과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존중과 책임’은 심미적 감성 역량, 공동체 역량, 갈등해결 역량, 의사소통 역량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개발한 것이다. 고등학교의 자료는 공감, 배려와 존중의 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제, 인권 등의 인성 함양을 목적으로 인문학 텍스트, 뉴스 등을 활용하여 교과 수업, 창의적 체험학습 시간에 학습할 수 있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보급되었다.

인성교육을 위해 교육부 인증 자료(MOE, 2020)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학생까지 다양한 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되었으며 이 중 초등학교를 위한 자료가 많았다. 유치원의 자료는 사회성, 자존감, 독립심, 자신감과 배려, 효, 협력, 질서, 나눔 등과 인성교육진흥법에 제시된 인성 덕목을 함양하기 위해 놀이, 친환경 연계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인증되어 보급되었다. 초등학교의 자료는 동물과의 상호 교감을 통해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신체적 발달에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는 동물보호교육, 다문화 가정 학생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프로그램, 도덕성과 법질서 준수 등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는 교육, 사회정서역량 개발을 통해 인성 역량을 기르는 프로그램, 언어를 탐구하여 언어문화 개선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전통문화체험을 중심으로 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등이 있다. 중학교의 자료는 자기 삶을 성찰하고 자기 이해, 관계와 소통, 행복 등의 영역에서 명상하는 프로그램, 믿음과 존중, 책임을 중심으로 한 인권 및 시민교육, 자기존중, 성실, 배려와 소통, 책임 등의 인성 요인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 공감과 배려, 학교폭력에 바람직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 인권교육 등의 자료가 인증되어 보급되었다. 고등학교의 자료는 2021년 인증된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이라는 주제의 인문계 고등학교와 특성화 고등학교용으로 나누어 공동체와 직업 윤리를 학습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어울림 프로그램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개발된 교육자

료이지만 이 중 ‘어울림 기본 프로그램’은 인성 역량 및 덕목을 중심으로 재구성하여 개발되었다. 여섯 가지 역량은 공감, 의사소통, 감정조절, 자기존중감, 갈등해결, 학교폭력 인식 및 대처이며 초중고 모두 여섯 가지 역량에 관해 학생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다. 여섯 가지 역량별 프로그램의 내용을 살펴보면, 공감은 ‘자신과 타인의 마음을 정서적으로 느끼고 인지적으로 이해하여 효과적으로 반응하거나 의사소통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초등학교 학년군에 따라 정서적, 인지적, 추상적 공감 능력을 기르고 중학교 시기에는 더 심화하여 나에 대한 이해, 타인에 대한 이해, 나와 타인을 포함한 학급 내 상황을 이해하는 내용이며 고등학교 시기에는 고차원적인 공감과 수용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다.

의사소통 프로그램은 언어적·비언어적 표현, 기능적·역기능적 의사소통 기술, 자기감정 인식 및 표현, 공감적 의사소통, 갈등상황 인식 및 합리적 의사소통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초등학교 시기에는 언어적·비언어적 표현 기술, 대화 예절, 공감을 표현하는 방법, 긍정적인 단어 사용 연습, 긍정 언어를 사용하여 타인을 지지하는 활동, 적극적인 경청, 공감 표현 및 인식과 공감을 표현하고 받았을 때 감정과 기분을 표현하는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중학교 프로그램에는 갈등상황에서 원만한 의사소통을 위한 목표에 맞는 단어 사용,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나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전달하고 수용하는 의사소통 태도를 기르도록 하고 있다. 고등학교의 프로그램에서는 자신의 의사소통 유형을 파악하여 합리적인 의사소통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하고, 비폭력 대화의 개념 이해, 공감적 대화의 태도를 기르는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감정조절 프로그램은 ‘감정알기’, ‘감정조절 필요성’, 감정의 원인은 무엇이며, 전달하는 방식에 따라 상대방은 유쾌하거나 불쾌한 감정이 생기는 ‘감정의 연쇄성’, ‘자신의 감정조절 양식 진단 및 평가’, ‘감정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거나 완화하기’, ‘인지수정 및 대안적 사고로 바꾸어 보기’, ‘상대방에 감정 전달하기’를 핵심 요소로 내용을 구성하여 초등학교에서는 감정을 인식하고 감정조절의 필요성과 감정조절과 해소의 방법을 연습하는 활동을 한다. 중학교에서는 감정조절 능력을 향상, 고등학교에서는 감정 전달의 올바른 절차를 익히

고, 왜곡된 생각을 바로잡도록 연습하는 활동을 한다.

자기존중감 형성을 위한 핵심 요소는 아동기의 무조건적인 인정과 사랑, 주변 사람으로부터의 긍정적 평가, 타인 또는 본인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모습을 기준으로 할 때 자신에 대한 우호적 평가, 유능하게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러한 내용을 고려하여 초등학교 자기존중감 프로그램에서는 인정과 사랑의 경험, 긍정적 자기 인식, 자기의 강점과 약점 파악 및 객관적 자기 수용, 협동과 타인을 지지하는 활동을, 중학교에서는 또래 집단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는 활동으로 모두가 가치있는 존재임을 깨닫고 올바른 또래문화를 형성하는 태도를, 고등학교에서는 집단 활동을 통해서 자신과 타인의 가치를 존중하는 태도를 기른다.

갈등해결 프로그램은 갈등 상황의 인식, 갈등해결 방안 탐색, 갈등해결 단계 학습, 또래 중재 연습, 본인의 갈등해결 전략 파악, 타협의 가치 탐색, 갈등해결과 관련된 가치관 탐색 등 다양한 요소의 학습 및 연습을 포함한다. 초등학교에서는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고학년 군으로 갈수록 상세하게 연습하고, 또래 중재의 개념을 이해하고 또래 중재자의 역할을 익히도록 한다. 중고등학교에서는 초등학교의 갈등 해결 방법을 더욱 심화하여 탐색하고 학습하며, 또래 중재자의 역할과 타협의 중요성,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가치관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등을 다룬다.

학교폭력 인식 및 대처 프로그램은 학교폭력의 정의와 종류에 대해 이해하고 학교폭력 가해로 인한 결과(학교폭력 관련 법령과 학교·학급 규칙, 사회적·정서적 측면), 학교폭력 피해 보호 체계(법적, 학교·학급의 규범으로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이해), 도움 요청, 스스로 대처하는 방법 등과 관계회복 및 폭력근절을 위한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등을 포함한다. 초등학교에서는 실제 사물이나 사건과 관련되어진 것들을 이용하였고, 신체적, 언어적 폭력에 초점을 두어 활동이 구성되었으며, 중등에서는 추상적이고 가설적인 상황과 사이버폭력, 관계적 폭력, 집단폭력, 따돌림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사이버어울림 기본 프로그램은 어울림 기본 프로그램과 같이 사이버 공간에서 여섯 가지 인성 역량 및 덕목과 중심으로 재구성하여 사이버 공감, 사이버 의사소통, 사이버 자기존중감, 사이버 감정조절, 사이버 갈등관리 및 문제 해결, 사이버 폭력 인식 및 대처와 사이버 자기조절, 인터넷 윤리 의식 및

활용 두 가치를 추가하여 총 여덟 가지 역량으로 개발한 교육 자료이다.

지금까지 인성교육의 필요성, 법적 근거와 교육정책에 따른 구체적인 추진 과제, 이를 위한 인성교육의 내용들을 살펴 보았다. 이러한 추진 과제들은 학교 교육 활동을 인성 친화적으로 변화시키고 교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교육과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지도자료와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있다. 교육부에서 개발, 인증한 인성교육 자료는 수업의 주제가 다양하고 인성 덕목과 민주시민, 세계시민, 인권, 사회정서 역량 개발 등을 목표로 개발되었다. 학교급과 인성교육의 내용과 범위, 학습 방법 등에서 계획에 따라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교육의 결과를 고려하여 개발된 자료로 보기에는 어려웠다. 교과 연계 지도자료는 국어과만 개발되었고 가정교과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자료는 없었다. 가정교과의 학습 내용 요소와 맞닿아 있는 내용은 학교급 별로 소통, 협력, 존중과 같은 인성 덕목을 다룬 자료와 공감과 자기 이해, 미디어 이용 교육,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는 내용의 지도자료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들도 명상 프로그램, 인물을 중심으로 하는 수업, 인문 고전을 활용하는 등 가정교과 수업에 바로 적용하기보다는 교사의 수업 재구성이 필요한 자료들이었다.

이에 반해 어울림 프로그램은 여섯 가지 역량을 정의하고 그에 따라 초중고의 수준을 고려하여 내용을 단계별로 조직하여 제공한 프로그램이다. 역량 중 의사소통, 자기존중감, 갈등 해결은 관련 내용이 가정과 교육과정의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의 내용 요소에 명시되어 있고 특히 의사소통 교육 내용의 경우 가정교과에서 모두 다루는 내용이다. 공감과 감정조절, 학교폭력 인식 및 대처능력도 청소년의 발달과 이해, 또래 관계와 같은 가정교과의 내용과 유사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가정교과의 감정에 관련한 내용은 청소년의 정서발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알아보는 정도에 그칠 수 있다.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는 등의 구체적인 방법의 습득이나 내면화는 교과서의 활동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다. 이러한 점은 공감, 자기존중감, 갈등 해결, 학교폭력에 관련 역량도 비슷할 수 있다. 어울림

기본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의 관계형성역량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계에 활용할 수 있는 실천 내용, 연습 활동, 도움과 조언을 얻는 방법 등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이 교과서의 활동이나 교사의 역량에 의해 차이가 나타나지 않도록 교육과정에서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청소년의 관계형성역량을 위한 영국의 교육 사례: 관계 교육

1) 관계교육의 법적, 제도적 특징

영국 정부는 2017년 3월 1일에 아동 및 사회복지법에 대한 개정안을 발표했으며 ‘관계교육(relationships education [RE])’, ‘관계 및 성교육(relationships and sex education [RSE])’, ‘개인, 사회, 건강 및 경제(personal, social, health and economic [PSHE]) 교육’에 대한 정책 성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영국의 모든 청소년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앞서 말한 세 과목의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과 개선 사항을 제시하고, 이 법안은 2019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임을 알렸다(DfE, 2017a). 이 배경에는 2000년에 도입된 관계 및 성교육이 청소년에게 긍정적 효과가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국가 교육과정의 정비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다(Pound et al., 2017; Pound et al., 2016). 온라인 포르노, 섹스팅, 온라인 활동에서 안전을 유지하는 문제 등이 만연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은 기존의 교육으로는 실패하였기 때문이다. 교육부 장관인 저스틴 그리닝(Justine Greening)은 현대의 영국인으로 잘 성장하는데 중요한 기본 토대를 형성하는 과목으로 관계교육이 꼭 필요하지만 많은 청소년이 이러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DfE, 2017b). 그는 모든 학교에서 의무화하여 일관된 교육이 필요하다는 청소년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계교육의 실행을 제안하였다(DfE, 2017a).

영국의 관계교육은 2020년 9월부터 적용될 의무교육 과목이 되었다(코로나19 사태로 2021년 9월에 시행). 영국의 교육부에서 제공한 ‘관계교육, 관계 및 성교육, 건강교육’에 대한 법적 지침에 따르면 온라인과 오프라인 생활을 넘나들며 점점

더 복잡해지는 세상에서 학생들은 긍정적이며 흥미로운 도전 뿐만 아니라 위험한 상황을 마주할 수 있다. 이에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하고 학업과 개인 및 사회생활을 긍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영국의 모든 초등학교(공립, 아카데미 또는 사립)에서 ‘관계교육’ 과목을, 모든 중등학교(공립, 아카데미 또는 사립)에서는 ‘관계 및 성교육’ 과목을 의무화하였고,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모든 학교에는 ‘건강교육’을 의무화하였다.

학생의 웰빙(well-being)을 촉진하고 행복과 성공, 생산적인 사회 구성원의 능력을 갖추기 위해 자신을 돌보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의 함양이 중요하기 때문에 초등학교(primary schools) 주요 단계(key stage, KS1)인 1, 2단계에서 가족과 우정에 중점을 둔 건강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핵심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다. 중등학교(secondary schools) KS 3, 4단계에서는 초등학교에서 습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건강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친밀한 관계 및 성에 대한 지식과 약물 및 음주와 같은 위험 영역을 학습하도록 하고 있다(DfE, 2019a). 이외에도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인터넷, 소셜 미디어 등의 온라인 활동과 관련하여 바람직한 이용 태도, 개인 정보 보호, 사이버 폭력 등 미디어 교육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중등학교에서의 성교육 내용은 필수이지만 다른 영역과 달리 학부모의 성교육 철회권을 명시하여 공교육에서 자녀에게 제공되는 성교육 면제를 요청할 권리를 보장한다.

기존에는 학교에서 ‘성과 관계교육(sex and relationships education)’, ‘개인, 사회, 건강 및 경제(PSHE) 교육’과 같은 내용이 선택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교육 내용 중 검증된 모범 사례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관계교육의 필수 내용으로 가르치고, 학교에서 이미 PSHE 프로그램에 따라 결혼에 대해

가르치는 경우에는 이 주제를 관계교육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되어 관계교육으로서 인정하도록 하였다(DfE, 2019b).

또한 영국의 평등법 규정에 따라 나이, 성별, 인종, 장애, 종교 또는 신념, 성전환, 임신 또는 출산, 결혼 또는 동거, 성적 취향 때문에 학교가 학생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RE 및 RSE의 법적 지침(DfE, 2019a)에 제공된 학습 자료를 보면, 초, 중등 교육과정의 예로 PSHE 협회의 학습 프로그램(<https://pshe-association.org.uk/resources-landing>)이나 가톨릭 교육의 모델(<https://catholiceducation.org.uk/schools/relationship-sex-education>)을 안내하고 있다. 제공된 카톨릭 RSE 커리큘럼에서 정서적 안정, 존중과 관계에서의 화해 등 PSHE 주제의 내용과 종교의 이해와 관련한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평등의 신념이 교육에 반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관계교육의 법적 지침에는 학교가 해야 할 일과 학교가 준수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 학교는 RE 및 RSE에 대한 서면 정책을 세워야 하며, 이를 학부모에게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학교 홈페이지나 소셜 미디어와 같은 온라인이나 학부모의 날 등의 행사를 계획하여 참여를 유도하고, 교육 내용에 대해 안내하고, 교육 내용과 방법을 결정하고 검토할 때 학부모와 상의하도록 하고 있다(DfE, 2019a).

2) 관계교육의 내용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RE 및 RSE 과목은 2019년 의무화 되었을 때 새롭게 등장한 과목은 아니다. 2000년대부터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2013년 영국 Ofsted의 보고서에서도 PSHE 교육이 약 60%의 학교에서 효과적이었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으며 많은 학교에서 PSHE 협회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교육하고 있었다(DfE, 2017a). 이렇게 축적된 우수 사례를 바탕으로, 2019년 의무화된 관계교육에서는 학생들이 앞으로 관계 상에 맞닥뜨릴 문제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첫째, 다양한 유형의 관계에 대한 교육이다. 교우관계와 가족관계, 낯선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중등학교에서 친밀한 관계를 맺는 방법 등이다. 둘째, 건강한 관계에 대한 교육이다. 건강한 관계와 건강하지 못한 관계를 인식하고, 자기 존중과 타인 존중, 책임, 관용, 경계 및 합의, 갈등관리 방법

1) 영국의 국가 교육과정(National Curriculum)에서는 교육과정의 단계를 주요 단계(key stage, KS)라고 부르고, 5-11세의 초등교육 과정은 KS 1단계(1-2학년)와 KS 2단계(3-6학년)의 두 교육과정 단계로 나뉜다. 11-16세의 중등교육 과정은 KS 3단계(7-9학년)와 KS 4단계(10-11학년)로 나뉜다. 국가 교육과정은 핵심 교과군, 기초 교과군, 기타 의무 교과와 선택 교과가 있다. 핵심 교과(Core subjects)는 영어, 수학, 과학이며 기초 교과(Foundation subjects)는 KS 단계에 따라 포함되는 것이 다르지만, Computing, Physical education, Citizenship, Art and design, Design and technology, Languages, Geography, History, Music이며, 기타 의무 교과로는 Religious education, Relationships education, Relationships and sex education, Health education이 있다. 그 외에 국가 교육과정 전반을 통하여 학습하도록 되어 있는 비의무적 선택 교과로는 PSHE, Business studies, Economics 등이 있다(DfE, 2019a; GOV.UK, n.d.).

을 익혀 건강한 관계를 이해하고 구축하는 것이다. 셋째, 관계의 영향이다. 관계는 신체 및 정신건강과 복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내용이다. 넷째, 온라인에서 건강한 관계 유지하기에 대한 교육이다. 다섯째, 중등학교에서 관계의 맥락에서 형성되는 성, 성 건강 및 성생활과 관련된 실제적인 지식이다. 이러한 지식과 기술의 내용은 나이에 맞게 초등과 중등 관계교육에서 다섯 가지 영역으로 제시되어 있다.

초등학교 시기에 학생들이 알아야 할 학습 내용은 가족과

나를 돌봐주는 사람들(families and people who care for me), 친구 사이의 배려(caring friendships), 존중하는 관계(respectful relationships), 온라인에서의 관계(online relationships), 안전한 관계(being safe)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Table 2). 초등학교에서는 긍정적인 관계의 기본 구성요소와 특성을 가르치는 데 중점을 둔다. 관계가 무엇인지, 우정, 가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와 자신과 다른 사람의 경계를 이해하고 존중하여 나아가 동기가 필요함을 이해하도록 한다. 특히, 가족 형태의 다양성

Table 2.
Content Factors of Relationships Education in Primary School in the UK

영역	학습 내용 요소
가족과 나를 돌봐주는 사람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의 중요성 • 건강한 가족생활의 특징, 가족 구성원 간의 돌봄과 삶을 공유하는 것의 중요성 • 나와 다른 가족에 대한 존중 • 돌보는 관계의 중요성 • 결혼의 의미 • 가족으로 인해 불행하거나 불안한 느낌이 드는지 인식하는 방법과 타인에게 도움과 조언을 구하는 방법
친구 사이의 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정의 중요성과 친구를 선택하고 사귀는 방법 • 우정의 특성(상호 존중, 진실성, 신뢰, 충성, 친절, 관대함, 관심과 경험 공유), 친구 관계의 문제와 어려움에 대한 지원 • 건강한 우정의 의미 • 또래 갈등의 의미와 비폭력의 중요성 • 신뢰할 수 있는 친구를 판단하는 방법 • 불행하거나 불편한 친구와의 관계를 판단하고 관리하는 방법, 도움과 조언을 구하는 방법
존중하는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 • 다양한 상황에서 관계를 개선하거나 존중하는 관계를 지원하는 방법 • 예의, 예절의 관습 • 자기 존중의 중요성과 행복 • 존중받기, 존중 실천하기 • 다양한 유형의 따돌림(사이버 포함)과 영향, 방관자의 책임, 도움받는 방법 • 고정관념이 무엇이며, 어떻게 불공평하고 부정적인지 등의 영향 • 타인과의 관계에서 허락을 구하고 듣는 것의 중요성
온라인에서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에서의 올바른 행동 • 온라인 관계 존중의 중요성 • 온라인에서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규칙과 원칙 • 위험, 유해한 콘텐츠 및 접촉을 인식하는 방법과 이를 신고하는 방법 •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들과 관련된 위험에 대한 인식 • 온라인에서의 우정과 정보 출처를 비판적으로 고려하는 방법 • 정보와 데이터가 온라인에서 공유되고 사용되는 방법
안전한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인과 경계 설정 • 프라이버시의 개념과 영향 • 신체 접촉에 대한 경계 • 모르는 어른에게 안전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방법(온라인 포함) • 나쁘고 안전을 위협하는 어른을 인식하고 신고하는 방법 • 우려 사항이나 학대를 보고하는 방법 • 도움과 조언을 얻는 방법

Source: DfE(2019a, pp. 20-22). Translated and restructured by authors.

을 존중하여 한부모, 동성부모, 조부모, 양부모 가족 등 학생들의 양육 환경이 다를 수 있음을 세심하게 판단하여 반영하고 있다. 학생 개인의 긍정적 관계형성역량은 자긍심과 자기 가치와 정직, 성실, 용기, 겸손, 친절, 관대함, 신뢰, 정의감과 같은 개인적인 특성의 개발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러한 특성 개발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 관계를 위한 특징은 온라인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온라인에

서의 관계를 위한 방법에 대해 교육한다. 또한 학생들의 정서적, 정신적 웰빙을 위한 교육이기도 하며, 잘못된 관계나 학대 받는 상황이라면 그 상황이 잘못된 것이라고 인식하고 보호받기 위해 지원을 요청하는 방법을 교육한다(DfE, 2019a).

중등학교에서는 필요에 따라 초등학교에 지정된 주제에 대한 지식을 계속 개발해야 하며 추가로 중등 교육과정에서는 <Table 3>의 내용을 다룬다. 중등학교의 영역은 초등에서 배

Table 3.
Content Factors of Relationships and Sex Education in Secondary Schools in the UK

영역	학습 내용 요소
여러 형태의 가족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유형의 가족 • 결혼의 법적 권리와 보호 • 결혼의 이유 • 다른 유형의 장기적 관계의 특성과 법적 지위 • 자녀 양육과 관련된 부모의 역할과 책임, 성공적인 양육의 특성 • 가족, 친구, 친밀한 관계 또는 기타 관계가 안전하지 않은지 판단하고 도움과 조언을 구하는 방법
우정과 존중하는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긍정적이고 건강한 우정의 특성 • 존중하는 관계를 개선하거나 지원하는 방법 • 고정관념(성, 성별, 인종, 종교, 성적 취향, 장애)의 피해 • 존중받기, 존중하기 • 다양한 유형의 괴롭힘(사이버 괴롭힘 포함)과 영향, 도움받는 방법 • 폭력적 행동 및 강압적 통제를 포함한 관계 내에서 범죄적 행동 인식 • 성희롱과 성폭력의 개념과 허용되지 않는 이유 • 평등에 관한 법적 권리와 책임
온라인과 미디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에서의 바른 행동 실천과 온라인상의 권리, 책임 및 기회 • 온라인 위협과 공유된 자료의 문제 • 온라인에서의 개인정보보호 • 온라인 자료 보고 및 문제 관리 방법과 지원 방법 • 음란물의 악영향 • 아동 음란물 공유, 시청과 같은 범죄 행위 인식 • 정보 및 데이터가 온라인에서 생성, 수집, 공유 및 사용되는 방법
안전한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적 동의, 성적 착취, 학대, 그루밍, 강요, 희롱, 강간, 가정 학대, 강제 결혼, 명예에 기반한 폭력 및 여성 할례의 개념과 관련 법률 • 성적 의사결정
성 건강과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하고 친밀한 관계의 특성(상호 존중, 동의, 충성도, 신뢰, 공통된 관심사와 전망, 성 및 우정)과 긍정적 측면을 인식하는 방법 • 성과 인간관계의 선택에 따라 건강에 미치는 영향 • 생식 건강과 남성과 여성의 생식 능력, 폐경의 영향 • 성적 압력의 이해와 다양한 행동 전략 • 성적 자기 결정권 • 피임의 이해 • 유산과 임신 • 임신과 관련된 선택(임신 유지, 입양, 낙태 등) • 다양한 성병에 대한 이해, 성병 위험을 줄이는 방법 • 일부 성병의 유병률과 감염자의 특징 및 치료 • 음주 및 약물 사용과 위험한 성행위의 연관성 • 성 및 생식 건강 상식을 얻고 치료를 위한 조언을 얻는 방법

Source: DfE(2019a, pp. 27-29). Translate and restructured by authors.

운 내용을 심화해서 여러 형태의 가족(families), 우정과 존중하는 관계(respectful relationships, including friendships), 온라인과 미디어(online and media), 안전한 관계(being safe), 성 건강과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intimate and sexual relationships, including sexual health)를 가르친다. RSE의 목적은 청소년이 친밀한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건강하게 형성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를 위해 건강한 관계가 어떤 것인지 이해하고, 자신과 타인을 존중할 줄 알도록 하며, 건강하지 못한 위험한 관계를 알아차리고, 안전한 관계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판단하고 도움을 받을 방법을 교육한다. 건강한 관계는 인간의 성에 대한 부분에도 적용되며 성적 자기 결정권의 이해와 건전한 성 가치관의 형성과 행동, 성 건강에 대한 지식을 배우게 된다. 학생들의 연령에 맞는 성교육이 이루어지는데, 성 정체성에 관한 내용과 법률도 포함하고 있다. 자기의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명확하고 민감하게 존중하도록 한다. 또한 초등학교와 같이 인터넷 안전과 온라인에서의 건강한 관계 형성의 노력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취급, 저작권, 유해한 콘텐츠의 접근과 책임 등에 관한 내용이 있다.

V. 논의

이 연구는 가정교과교육이 청소년의 관계형성역량을 증진시키는 데에 기여하기 위해 국내의 교육 사례로서 한국의 인성교육과 영국의 관계교육을 선정하고 각각의 특징과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의 인성교육은 2015년 인성교육진흥법 시행과 인성교육 종합계획을 통해 활성화될 수 있었고, 관계형성역량을 증진시키는 데에 있어서 배려나 존중과 같이 가치와 덕목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설정 및 수행되었다. 영국의 관계교육은 2017년 아동 및 사회복지법 개정안에 기반하여 ‘관계교육’, ‘관계 및 성교육’의 초·중등과정에서 필수교과로서 의무화하여 활성화가 되었으며, 온라인 상의 관계나 안전한 관계 설정과 같은 실질적인 내용을 계열성을 가지고 초·중등 과정에 걸쳐 담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 연구를 통해 가정교과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관련한

논의점은 다음의 세 가지이다.

첫째, 인성교육에서 추구하는 가치 덕목은 가정교과의 핵심 개념 ‘관계’와 관련된 학습 내용 요소와 상당 부분 일치한다. 가정과는 인성·시민교육의 역량과 덕목을 내용 요소로 포함하고 있는 교과이다. 제2차 인성교육 종합계획에서 명시한 대로 인성교육이면서 동시에 민주시민교육이 될 수 있다(MOE, 2020). 모두 자신과 타인이 함께 살아가는 데 필요한 교육으로, 인성교육이나 민주시민 교육과 같이 여러 관점에서 건강한 관계를 맺고 유지하기 위한 교육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1차 인성교육 종합계획 추진 후 진단한 결과, 교육부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에 대하여 교과 교육과정과 조화되지 못하고 행사처럼 일회성으로 활용되며, 학교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질 좋은 자료이지만 수업 맥락에 바로 적용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MOE, 2020).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인성교육에서 선정한 덕목과 역량의 주제가 가정교과를 통해서 관계형성역량 함양으로 이어지도록 가정교과교육에서는 ‘관계’ 관련 내용 요소에 대하여 깊이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연구를 통해 보완된 내용이 학생들의 가치와 태도에 내면화되고 실생활에서 실천하도록 학습할 수 있는 자료, 프로그램, 교수·학습 방법도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영국의 관계교육에서 다루는 내용 중에서 가정교과를 포함하여 우리나라에서 크게 강조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영국의 관계교육에서는 건강한 관계의 중요성과 관계 유지 방법만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관계와 건강하지 못한 관계를 인식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그리고 안전하기 영역에서 다른 사람과의 경계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과 프라이버시, 어른에 대해 안전하지 않게 느끼는 경우 나쁜 감정을 인식하고 알리는 방법도 포함하고 있다.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내용인 만큼 낯선 어른을 대할 때 경계하는 내용이 포함되었겠지만, 낯선 사람을 대할 때 안전을 고려하고 또 예의를 갖추는 태도는 나이가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주의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범죄와 같은 문제를 생각해 보면 타인과의 관계나 가족 간에도 그 관계가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개인의 불행과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중등학교 시기의 영국 관계교육의 내용에는 ‘성 건강과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가 핵심 영역 중 하나이다. 남성과 여성의 생식 능력과 건강, 성적 자기 결정권, 피임과 임신, 유산, 성병에 대한 지식, 건전한 성 가치관에 관한 내용은 가정교과의 학습 내용과 매우 유사하다. 가정과교육과의 차이점으로는 성을 중심으로 한 관계에서의 압력, 알코올과 성관계의 관련, 성과 관련하여 건강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데에 필요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성교육의 중요성을 안내하여 학습하도록 하지만 교육을 받는 학습자의 다양한 상황과 요구의 차이를 인정하여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에서 가정교과의 성교육에 관한 내용이 다양한 학습자를 고려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피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 얻을 수 있다. 또한, 다양한 문화를 고려하여 교육의 대상과 시기를 정하고 내용을 보완, 수정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준다. 성과 관련한 관계의 문제는 영국에서처럼(Hassall & Booth, 2021)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으로 교육의 필요성이 요구(Han, 2023; Her, 2022; Kim, 2021)되고 있으므로 가정교과에서 다루어야 할 성교육 내용의 수준과 깊이에 대해 가정과 교사와 간에도 많은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영국의 관계교육은 평등법을 기준으로 한부모, 동성부모, 조부모, 양부모 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존중하여 학생들의 양육 환경이 다를 수 있음을 세심하게 잘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가정과교육에서도 사회 변화에 따라 가족 형태의 다양화와 가족 가치관의 변화를 학습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기에 이 부분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회 변화에 따른 다양한 가족의 출현을 전달하는 수준에서 나아가 다양성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회·문화적 가치를 실천하는 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저출산·고령사회에서 세대 간 이해와 통합, 가족의 중요성과 가족의 의미를 이해하고 가족이 인간의 행복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학생들이 진지하게 고민하여 모색하여 내면화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가족의 의미 확장과 가족 및 관계와 관련된 학습 내용과 사례, 활동 수업 등에서도 다양한 가족의 형태와 학생들의 다양한 양육 환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확대된 가족의 의미를 수용하고 가족 가치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지만, 동성혼에 대해서는 문화적인 차이가 존재하므로 이 주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생각과 판단이 존재하고 있음을 안내하고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불거지는 문제점들을 생각해 보는 기회가 제공되도록 고려해야 할 것이다.

셋째, 디지털 환경을 고려한 관계 교육이 필요하다. 인성교육진흥법과 학교폭력예방법 시행 후 관련 정책이 추진되어 인성교육과 학교폭력예방교육이 진행되고 있지만, 청소년들의 학교폭력, 사이버 폭력 문제, 온·오프라인상에서의 관계의 문제 등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영국의 초중등 관계교육의 핵심 영역 중에서 ‘온라인과 미디어’가 공통적으로 들어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미디어 사용이 일상인 청소년에게 온라인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교육 내용은 사회 변화로 인해 새롭게 요구되는 교육 내용이다. 2022 개정 가정과 교육과정에서도 가상공간에서의 친구 관계, 디지털 생활환경에 대한 부분이 추가되었으므로 Z, 알파 세대의 특징을 고려하여야 한다. 즉, 가정교과에서도 온라인상에서의 관계와 디지털 세상에서의 건강한 관계, 디지털 시민성 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현재 개발 중인 교과서에도 반영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가정과교육에서 관계형성역량 향상을 위한 방향을 탐색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가정교육학회지, 대안가정학회지,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지를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기 때문에 이들 학술지 외에 게재된 경우를 포함하지 않았다. 따라서 가정과교육에 한정하지 않고 다른 교과교육에서 사용되는 대인관계역량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포함하여 보다 다양한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들을 포함한다면 관계형성역량에 관한 포괄적인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탐색적이고 시론적 연구로 영국의 교육과정과 한국의 가정과 교육과정을 종합적이고 다면적으로 비교 분석한 연구가 아니라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세부적인 분석 기준을 설정하여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유사한 교육을 하는 다른 국가의 사례를 추가로 비교한다면 다양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지금까지 가정교과 내에서 관계형성역량 함양을 목적으로 한 연구나 교육과정의 핵심 개념인 ‘관계’를 정의하고 학습 요소를 직접적으로 탐색하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에서 관계에 관한 교육의 방향을 탐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개인, 가족의 행복을 목표로

하는 가정교과교육에 있어서 ‘관계’는 가족, 또래, 다른 세대와의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해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가정교과교육은 관계에 관한 교육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성격과 목표에서 건강한 관계를 중요하게 서술하였지만, 핵심 개념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관계’라는 상징적 중요성은 사실상 축소되었다. 그러므로 가정교과교육에서는 영국의 관계교육과 같이 공교육에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거나 끝맺음하는 전 과정에 걸친 더 정교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은 교과역량과 관련하여 가정교과교육에서 수행해야 할 연구이며 결과적으로는 학생들이 관계형성역량을 증진하여 실생활에서 건강하게 관계를 조성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가정교과교육에서 관계형성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으로서 관계교육의 개념 정의와 학교급을 고려한 교육 내용을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건강한 관계에 관한 주제의 학습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관계’ 관련 내용 요소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가 이어지고, 학생의 태도와 변화를 끌어내고 가치를 내면화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의 개발과 학습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연구도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연구가 현장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진행될 것을 기대한다.

Declaration of Conflicting Interests

The author declares no conflict of interest with respect to the authorship or publication of this article.

참고문헌

Chae, J. H., Park, M. J., Kim, S. G., & Han, J. (2017). *Introduction to home economics education*. Paju: Gyomoonsa.
 Choi, S. J., Kim, T. Y., Park, M. H., & Shin, H. J. (2022).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 stress and subjective well-being under the covid-19: The mediation effects of psychological pain. *Journal of Korea Society for Wellness*, 17(2), 319-328. <http://dx.doi.org/10.21097/ksw.2022.5.17.2.319>

Department for Education (2017a). *Policy statement: Relationships education, relationships and sex education, and personal, social, health and economic education*.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relationships-education-rse-and-pshe>

Department for Education (2017b). *Press release: Schools to teach 21st century relationships and sex education*. <https://www.gov.uk/government/news/schools-to-teach-21st-century-relationships-and-sex-education>

Department for Education (2019a). *Relationships education, relationships and sex education (RSE) and health education: Statutory guidance for governing bodies, proprietors, head teachers, principals, senior leadership teams, teachers*.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relationships-education-relationships-and-sex-education-rse-and-health-education>

Department for Education (2019b). *Parental engagement on relationships education*. <https://www.gov.uk/official-documents>

GOV.UK (n.d.). *The national curriculum*. <https://www.gov.uk/national-curriculum>

Han, J., & Yoon, J. (2022). Content analysis of pre-parent education included in the curricula of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Focusing on South Korea, USA, the UK, and Australia. *KICCE*, 16(3), 3-27. <https://doi.org/10.5718/kcep.2022.16.3.3>

Han, Y. S. (2023, February 3). 청소년 ‘성’은 죄악? ... ‘룸카페 논란’이 놓치는 것 [Is youth ‘sex’ a sin? ... What the ‘room café controversy’ misses]. *Pressian*. <https://m.pressian.com/m/pages/articles/2023020310180748364#0DKW>

Hassall, H., & Booth, J. (2021, May 25). Teachers ‘struggle to deal with classroom sexual abuse’. *BBC News*. <https://www.bbc.com/news/education-57231920>

Her, M. R. (2022, November 5). 심각한 청소년 성인지.. 왜곡된 성 지식 우려 [Serious youth gender awareness... concerns over distorted sexual knowledge]. *Dangjin Newspaper*. <http://www.idj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36794>

Introduction of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2015). *Character*

- education promotion act.* <https://www.law.go.kr>
- Joo, H., & Choi, S. (2020). The effects of storytelling family classes using picture books on the resilience and parent-child relationship of adolescents: Focusing on the core concepts of 'relationship' and 'safety' in middle school technology · home economic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Research*, 32(1), 167-184. <https://doi.org/10.19031/jkheea.2020.03.32.1.167>
- Kim, E. J. (2018). The development of instructional design for strengthening of the relationship formation competence through the lessons of housing area.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Research*, 30(1), 65-77. <http://dxdoiorg/10.19031/jkheea.2018.03.30.1.65>
- Kim, K., Song, J., & Lee, G.-E. (2019). Analysis of the units related to core concept 'relation' in middle school technology-home economics textbooks based on the 2015 revised curriculum.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9(24), 87-109. <http://dx.doi.org/10.22251/jlcci.2019.19.24.87>
- Kim, S. M., & Yu, N. S. (2019). Analyses of subject competencies of the units related to core concept 'relation' in middle school technology-home economics textbooks based on 2015 revised curriculum.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Research*, 31(2), 1-18. <https://doi.org/10.19031/jkheea.2019.06.31.2.1>
- Kim, Y. M. (2021, October. 2). 성경험 빨라지는데... 청소년 피임 타부시 [Sexual experience is getting faster... Adolescent contraception taboo]. *The Seoul Shinmun*. <https://m.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1002500024>
- Lee, J.-S., & Choi, S. (2021). An exploratory study on the development of curriculum in human development and family science for elective high school credit system. *The Journal of Curriculum and Evaluation*, 24(4), 105-127. <https://doi.org/10.29221/jce.2021.24.4.105>
- Lee, S. M., & Yu, N. S. (2019). Analysis of multi-cultural education contents of 'human development and family' area of middle school technology-home economics textbooks in accordance with the 2015 revised curriculum.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Research*, 31(2), 79-94. <https://doi.org/10.19031/jkheea.2019.06.31.2.79>
- Lim, J. H., & Jun, M.-K. (2016). 'Development' and 'relations', as the core concepts of home economics in 2015 revised middle school curriculum in Korea.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Research*, 28(1), 1-17. <http://dx.doi.org/10.19031/jkheea.2016.03.28.1.1>
- Lim, J. H., Kim, K., Song, J., Choi, J. W., & Kwon, O. (2020). Relationship between the human development & family domain of 2015 revised home economics curriculum and Korea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K-SDGs). *The Journal of Curriculum and Evaluation*, 23(4), 1-17. <https://doi.org/10.29221/jce.2020.23.4.1>
- Lim, J., Kim, K., & Choi, J. (2022). Development of lesson plans in the human development & family domain of the home economics curriculum to achiev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Research*, 34(2), 41-58. <https://doi.org/10.19031/jkheea.2022.6.34.2.41>
- Lim, M. S. & Choi, S. Y. (2023). An analysis of subject competencies applied in the activity tasks of the 'human development and family' area in high school technology & home economics textbook based on the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Journal of Home Economics Education Research*, 35(3), 21-45. <https://doi.org/10.19031/jkheea.2023.9.35.3.21>
- Ministry of Education (2016).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2016~2020) [Five-year comprehensive plan for character education (2016~2020)].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16&lev=0&statusYN=C&s=moe&m=0302&opType=N&boardSeq=62204>
- Ministry of Education (2020). 제2차 인성교육 종합계획(2021~2025) [The 2nd Comprehensive plan for character education].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16&lev=0&statusYN=W&s=moe&m=0302&opType=N&boardSeq=82385>
- Ministry of Education (2022). *Practical arts (Technology/Home Economics)/curriculum (Ministry of Education notice 2022-33)* [separate books 10]. Sejong: Author.
- Ministry of Education (2023). 2023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Announcement of the results of the 1st school violence survey in 2023].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97458&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

- 2&opType=N
- Park, J. H., & Ju, S. (2019). Development of the revised 2015 curriculum teaching · learning plan based on the backward design model: Focused on core concept ‘relationship’.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9(15), 1203-1236. <http://dx.doi.org/10.22251/jlcci.2019.19.15.1209>
- Pound, P., Denford, S., Shucksmith, J., Tanton, C., Johnson, A. M., Owen, J., ... Campbell, R. (2017). What is best practice in sex and relationship education? A synthesis of evidence, including stakeholders’ views. *British Medical Journal*, 375(8481), e014791. <https://doi.org/10.1136/bmjopen-2016-014791>
- Pound, P., Langford, R., & Campbell, R. (2016). What do young people think about their school-based sex and relationship education? A qualitative synthesis of young people’s views and experiences. *British Medical Journal*, 352(7983), e011329. <https://doi.org/10.1136/bmjopen-2016-011329>
- Shim, J., & Choi, S. (2020). Development of teaching-learning plans of middle school home economics for media literacy: Focusing on core concept of ‘relationship’.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Research*, 32(4), 1-18. <https://doi.org/10.19031/jkheea.2020.12.32.4.1>
- So, K. H. (2015). Things intended and realized in the 2013 revision of the national curriculum in England: Significance and limitation.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33(3), 199-220.
-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23a). 1388 청소년 전화 접수 현황: 2017-2022 청소년 상담 1388 전화 상담 실적 [Status of 1388 youth phone calls: 2017-2022 Youth counseling 1388 phone consultation results].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601
-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23b). 2023 청소년 통계 [2023 youth statistics]. https://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11135
- Yu, I.-Y., & Park, M.-J. (2019). The influence of ‘healthy couple relationship’ education on the relationship formation competencies and marriage values of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Research*, 31(4), 129-147. <https://doi.org/10.19031/jkheea.2019.12.31.4.129>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들이 관계형성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가정과교육의 방향을 탐색하고 구체적인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의 인성교육과 영국의 관계교육 교육과정의 내용을 분석하였고,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의 인성교육은 책임, 존중, 배려, 소통 등의 인성교육 가치 덕목을 공교육 전반에서 교육하고 있다. 인성교육의 가치 덕목은 가정과교육의 관계형성 역량 함양을 위한 학습 내용 요소와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다. 영국의 초, 중등 단계의 관계교육은 한국의 중학교 가정과교육의 건강한 관계를 이해하고 유지하기 위한 목표와 학습 내용이 유사하였다. 그러나 안전한 관계, 다른 사람과의 경계 설정, 성교육 내용 포괄성, 성교육 거부권, 평등권에 근거한 교육 내용 등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가정과교육에서 관계형성역량 향상을 위해 관계에 대한 교육의 개념 정의와 체계적인 교육 내용 구성이 개발되어야 하며, 학생의 태도와 변화를 끌어내고 내면화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의 개발과 학습 프로그램 개발 연구도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리고 추가·보완할 교육 내용과 고려할 점에 대한 시사점을 얻었다.

■논문접수일자: 2023년 11월 26일, 논문심사일자: 2023년 12월 26일, 게재확정일자: 2024년 2월 19일